



**제30차 SASE 연례학술대회**

**Global Reordering:**

**Prospects for Equality, Democracy and Justice**

글로벌 재편: 평등, 민주주의 및 정의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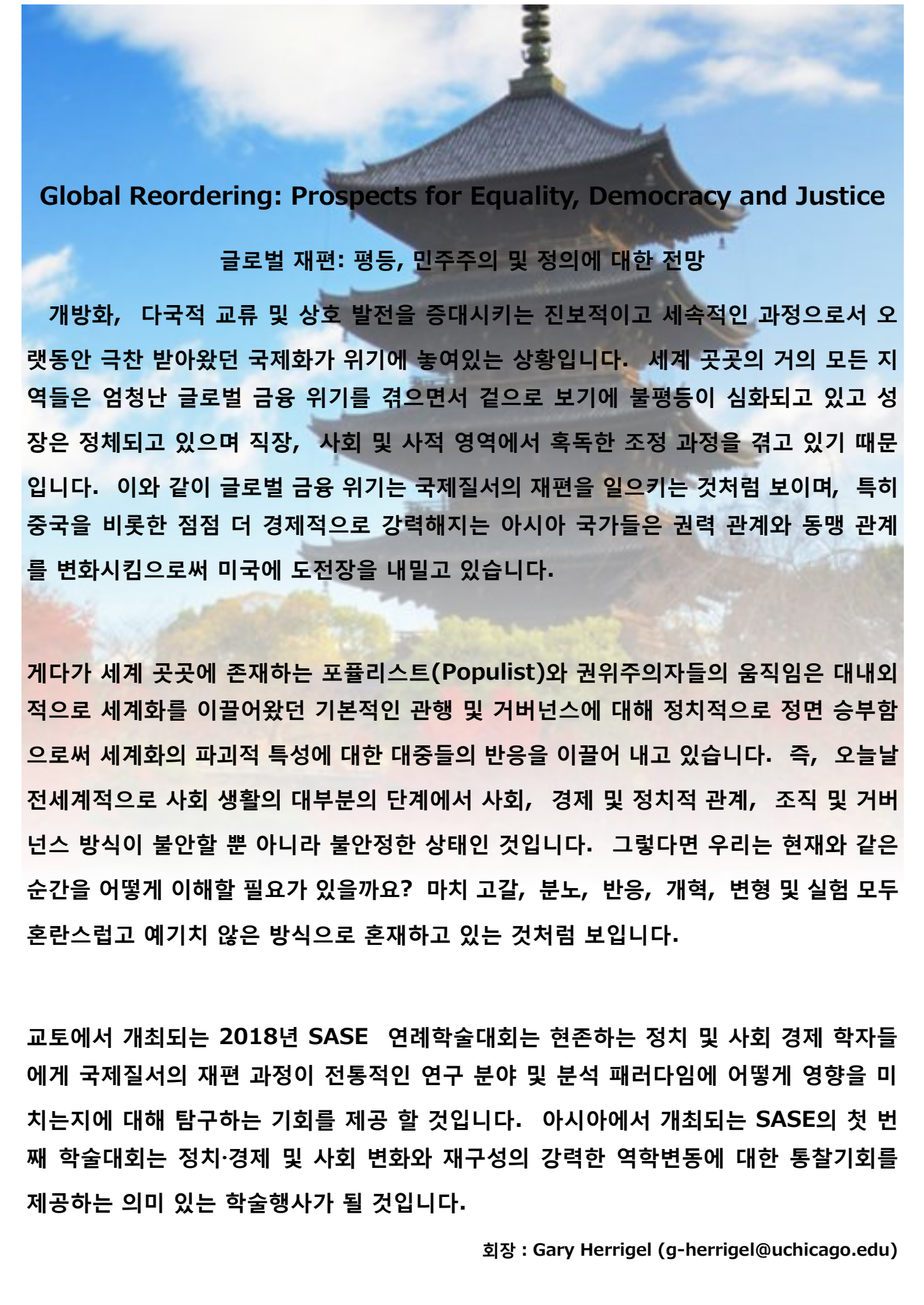
날짜: 2018년 6월 23일~6월 25일: 연례학술대회

2018년 6월 21일~6월 22일: 워크숍

장소: 도시사 대학교, 교토, 일본

논문 마감일: 2018년 1월 29일 (초록제출)

<https://sase.org/>



## Global Reordering: Prospects for Equality, Democracy and Justice

### 글로벌 재편: 평등, 민주주의 및 정의에 대한 전망

개방화, 다국적 교류 및 상호 발전을 증대시키는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과정으로서 오랫동안 극찬 받아왔던 국제화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의 거의 모든 지역들은 엄청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성장은 정체되고 있으며 직장, 사회 및 사적 영역에서 혹독한 조정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점점 더 경제적으로 강력해지는 아시아 국가들은 권력 관계와 동맹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포퓰리스트(Populist)와 권위주의자들의 움직임은 대내외적으로 세계화를 이끌어왔던 기본적인 관행 및 거버넌스에 대해 정치적으로 정면 승부함으로써 세계화의 파괴적 특성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회 생활의 대부분의 단계에서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관계, 조직 및 거버넌스 방식이 불안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순간을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고갈, 분노, 반응, 개혁, 변형 및 실험 모두 혼란스럽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혼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토에서 개최되는 2018년 SASE 연례학술대회는 현존하는 정치 및 사회 경제 학자들에게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이 전통적인 연구 분야 및 분석 패러다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SASE의 첫 번째 학술대회는 정치·경제 및 사회 변화와 재구성의 강력한 역학변동에 대한 통찰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될 것입니다.

회장 : Gary Herrigel (g-herrigel@uchicago.edu)